사건과 건축공간의 관계성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y of Interrelationship between Events and Architectural Space

Author 이미경 Lee, Mi-Kyung / 정회원, 동양미래대학교 실내디자인과 부교수

Abstract An event as philosophical thought is expanded throughout our society and affected largely an architectural field as well as aesthetics. Paying attention to this fact, this study is to relate the event to an architectural space and to find an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m. Since Martin Heidegger who started to be regarded the event as a subject of thought, many philosophers revealed different thoughts about it. Architecture works of Louis I. Kahn, Peter Zumthor, Steven Holl, Bernard Tschumi, Rem Koolhaas who had the influences from the thoughts of Martin Heidegger, M. Merleau-Ponty, Jacques Derrida, Gilles Deleuze, are analyzed and compared their features. The reason why this relationship has become the subject of research is because the event can be confirmed to be connected with an architectural thoughts by correlating with aesthetic texts. Throughout this study, each architect, who is affected from philosophers, has different characters as they have different thoughts about events.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an literature data of intertextuality of philosophy and architecture.

Keywords 사건, 존재, 실존, 장소성, 의미, 생성
Event, Being, Existence, Place, Meaning, Becoming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실재하는 것만을 진실의 대상으로 삼아온 합리주의 플라톤(Plato, BC428~348)적 계보(系譜)는 절대적 수치로 통제 불가능한 시간을 사유(思惟)에서 제외시켰기에 <사건 Event> 또한 순간적인 것으로 담론(談論)의 가치를 갖지 못했다. 이후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1879~1955)의 <상대성이론>과 베르그송(Henri Bergson, 1859~1941)의 <지속(持續/Duration)>은 <사건>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는 시점이 되었으며 이는 미학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고흐나 세잔, 바넷 뉴먼, 잭슨 폴락 등의 미술 텍스트들이 사건 사유의 도구로 사용 되었으며 이는 영화, 문학, 사진, 건축 등으로 폭 넓게 확장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계에 주목하여 사건의 담론을 건축 공간과 연결시켜 그 상관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사건의 사유와 건축공간의 관계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사건의 사유가 건축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으며 초월적 시간과 가상성, 복합화와 혼성화와 같은 동시대를 이끌고

있는 현상들도 이 사건의 개념 안에서 설명가능하다는 전제 때문이다. 사건 사유의 다양한 관점과 이와 관계된 건축가의 사고를 추적하여 비교 논의하는 것은 다음 목적을 수행한다. 첫째, 사건의 철학적 사유가 미학적으로 건축가의 사고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비교 확인한다. 둘째, 사건의 사유에 영향을 받은 건축가의 사고가 작품으로 구축된 특징을 비교 분석한다. 본 연구는 사건 사유의 다양한 관점과 이것의 텍스트로서 사용된 예술, 그리고 건축과의 관계성을 연결 지어 비교 분석한 연구로서 건축미학을 사건의 관점으로 탐침(探針)한 문헌 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1.2. 연구의 방법과 절차

사건의 사유가 미학과 관계하면서 건축과의 관계를 추적하기 위해 본 연구는 관련 텍스트들을 연결하는 문헌 조사 방식과 특징을 분석하기 위한 사례조사 방식을 취한다. 문헌조사는 사건 사유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와 메를로퐁티(M. Merleau-Ponty, 1908~1961), 데리다(Jacques Derrida, 1930~2004),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의 사고를 근간(根幹)으로 삼고 이들의 사유와 관련하여 미학

* 이 논문은 2011년도 동양미래대학교 산업체현장연구과제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혹은 건축과 연결된 문헌들을 추적하여 그 관계성을 찾고자 한다. 사건 사유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본질, 주체, 성격, 형식으로 세분화한다. 사건 사유와 건축적 사고의 관계 확인과 특징 분석을 위해서는 사건에 관해 직접 언급하였거나 평가되었던 루이스 칸(Louis I. Kahn, 1901~1974), 피터 Zumthor(1943~), 스티븐 홀(Steven Holl, 1947~), 베르나르 추미(Bernard Tschumi, 1944~), 렘 쿨하스(Rem Koolhaas, 1944~)의 건축사고와 그들의 작품 사례를 이용하고자 한다. 이들 작품의 특징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사건의 사유를 본질, 주체, 성격, 형식으로 분류한대로 사건화를 위한 공간 특징으로서 공간의 본질, 주체, 성질, 형태적 특성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2. 사건의 사유와 미학에의 영향

사건을 존재론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것이 나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¹⁾”로서 발현(Ereignis), 순간적으로 드러남 등과 관계된다. 다시 이를 구조로서 해석하면 변화하는 운동의 장소로서 의미가 생성되는 지점으로 정의된다. 이 두 정의만으로도 사건은 시간과 연결되며 장소화된 시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건이 실재하는 진실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고전적 사고에서 시뮬라크르(Simulacre) 취급을 받아온 데 반해 스토아학파는 사건을 하나의 언어로서 표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이를 실재성을 지니고 있는 음성적 실체 즉 물질적 실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사건을 물체의 표면에서 발생하는 효과로서 이는 곧 의미의 문제와 연결되며 이것은 영원히 반복된다.²⁾고 함으로서 고전적 사고와는 상이한 주장을 하였다. 아인슈타인에 이르러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사물은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일련의 사건으로 해석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공간을 이미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상대성 이론을 비판하고 시간을 <지속>의 개념으로 인식한 베르그송은 다양성의 시간을 등장시킨다. 이러한 시간의 개념들은 사건을 논의의 중심에 설 수 있게 만들었으며 화이트헤드(A. N. Whitehead, 1861~1947)와 하이데거가 사건 사유를 본격화 한다. 이들은 시간을 현실화시키고 자기실현적 존재로서 사건을 가장 철저하게 부각시켰다.³⁾ 이후 메를로퐁티, 리오타르(Jean Francois Lyotard, 1924~1998), 데리다, 푸코(P. M. Foucault, 1926~1984), 그리고 들뢰즈에 이르기까지 각기 사건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며 논의는 계속되었다. 본 장에서는 사건의 사유가 현대에

까지 진행되는 동안의 미학과 관계된 문헌들을 추적하고자 한다.

2.1. 존재론적 사건과 송고 비판

사건을 논의함에 있어 화이트헤드와 하이데거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들은 시간과 공간을 절대적 개념이 아닌 인식과 현상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하이데거는 사건을 “전달될 수 없고 매개적으로 인식될 수 없지만 명백히 체험되는 것⁴⁾”이라고 규정하고 세계를 경험하는 역할로서 바라보았다. 여기서 하이데거는 세계_내_존재(Inder-Welt-Sein)를 통해 현존재의 개념을 강화한 존재 중심적 사고를 주장한 반면 화이트헤드는 일부분 타자의 영향⁵⁾을 끌어들였으나 이들 사건의 공통된 특징은 외부의 영향과는 격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사건 발생 원리가 자기실현으로서 외적 근거로부터 멀리 있다는 점이다. 이점에서 사건은 고정되어 있고 사물 또한 내재한 본성이 고정불변이라는 점에서 이후 많은 사상가들에게 오류로 지적을 받는다.

그러나 하이데거 사유의 미학적 가치는 형식이 아닌 체험의 집합 즉 사건을 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높다. 그는 사건을 “어떤 것이 탈 은폐되어 존재의 진리가 발생하는 것⁶⁾”이라 하고 이와 함께 예술을 “진리가 발생하는 탁월한 방식 중의 하나”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예술을 바라보는 태도에 있어 미적 관조의 대상으로서가 아닌 진리가 발생하는 방식⁷⁾으로 대하였다는 점에서 미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에게 고흐의 <구두>와 <그리스신전>의 진리는 현존재와 대응 투사하여 그때마다 탈 은폐하는 존재자 속으로 사건화 되어 간직되는 것이다. 따라서 하이데거에게 구두는 재현이 아니며 삶의 터전인 대지와 그것이 꾸려진 세계의 열림이다. 신전 또한 신화적 세계의 재현이 아니며 건축되어짐으로서 비로소 역사적 민족이 거주하는 진리가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열린 세계가 체험되는 것을 하이데거는 사건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탈은폐하는 사건은 작품의 진리가 단번에 결정나버리므로 하나의 의미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리오타르,

<그림 1, 2> Vincent van Gogh
'구두'와 Parthenon, BC 479

1) 이기상, 하이데거의 존재 사건학, 서광사, 2003, p.66
2) Gilles Deleuze, 의미와 논리, 이정우 역, 한길, 1999, pp.55-56
3) 문창욱, 현대철학의 하이데거적 문맥에서 본 화이트헤드의 사건 분석, 한국동서철학회 논문집 28호, p.202

4) M. Heidegger, Time and Being, trans. Joan Stambaugh, Harper and Row, 1977, p.47
5) 문창욱, op. cit., p.220
6) 이기상, op. cit., p.66
7) 진중권, 현대미학강의, 아트북스, 2003, p.66

사피로, 데리다 등의 비판을 받게 된다.

리오타르는 “하이데거의 일어남과 진리의 발생은 이미 사고되고 사회화한 것이다.”라고 비판하고 사건을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daß es geschieht)?”⁸⁾라는 현재의 가능성으로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사건을 발생(Occurrence)이라고 말하였다. 즉 사건은 의식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아닌 현재 무엇이 발생되고 있는가의 의문부호⁹⁾라는 것이다. 리오타르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창조의 행위와 사건을 하나로 묶는

미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는 예술가가 사건을 가능하게 하는 결합을 시도한다고 보고 바넷 뉴먼(Barnett Newman, 1905~1970)의 사고와 작품을 통해 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¹⁰⁾ 즉 창조의 행위는 재현을 벗어나 무를 통해 묘사할 수 없는 세계를 증언하는 것이며 이 가능성의 차원을 실천하는 것이 근원적 사건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리오타르가 뉴먼을 통해 사건을 미학적으로 전개하면서 받아들인 것이 숭고 체험이다. 그에게 숭고는 더 이상 에드먼드 버크와 임마누엘 칸트가 말하는 거대함, 웅장함¹¹⁾이 아니며 기존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몰 형식의 상태에서 느끼는 모든 심미적 쾌감을 동반하는 사건성의 체험이다. 따라서 현 세계의 본질적인 비결정성의 공간을 열어 순수한 사건의 효능¹²⁾인 새로운 경험을 발생시키는 것이 숭고의 체험이라는 것이다. 숭고 체험은 기대하지 않는 사건을 기다리는 두려움과 미지의 것을 느끼는 데서 비롯되는 기쁨이 동시에 수반되는 모순 감정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회화에서는 숭고의 부정적 묘사라 한다. 즉 창조의 행위에서 묘사할 수 없는 세계로부터 무엇인가가 일어나기 위해

<그림 3> Barnett Newman
Onement I, 1948

<그림 4, 5> 상/의지의
승리, 1935, 하/2001 A
Space Odyssey, 1968

형태와 색채는 최소화될 수밖에 없으며 침묵으로 가능성의 차원을 사고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 리오타르 또한 하이데거와 마찬가지로 존재의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과 기쁨의 혼합감정을 통해 경험을 만든다는 점에서 존재를 강화시키고 있음이 발견된다. 레니 리펜슈탈(Leni Riefenstahl, 1902~2003)의 영화 <의지의 승리>나 큐브릭(Stanley Kubrick, 1928~1999)의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¹³⁾ 등과 같은 파시스트 미학에서도 이런 존재 강화의 숭고가 드러난다. 기념비적이며 절제된 힘, 일관된 패턴, 정확성, 육체의 완벽성 등의 숭고 패턴은 파시스트 예술을 유토피아적으로 강화시킨다. 리오타르가 파시스트 미학을 거부하나 숭고정치가 존재함을 인정하듯¹⁴⁾ 하이데거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였으나 결국 숭고의 사건을 통해 존재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발견된다.

2.2. 메를로퐁티의 사건과 푸코의 비판

메를로퐁티는 몸의 경험을 강조하였다. 몸이 세계를 지각한다는 것은 반성 전의 직관을 통해 육화(肉化)한 체험을 의미한다.¹⁵⁾ 그는 이미 몸이 시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몸에 속한 시간은 존재와의 관계 자체라고 하였다.¹⁶⁾ 그러므로 시간은 지향성을 지닌 주체가 미래의 자신을 투사하면서 접촉하는 사물들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차원들 중 하나라고 말하였다.¹⁷⁾ 따라서 존재 자체인 공간은 시간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주어진 대상에 대한 회고적(rétrospectif) 상태와 목표로 하는 대상을 향해 방향을 잡는 예견적(prospectif) 상태를 결합시켜 만들어진 시간에서 의미가 형성된 것이 사건이라고 말한다.¹⁸⁾ 따라서 사건은 주체의 감관을 통해 자극된 지각이 신체의 과거, 현재, 미래의 상황과 접목하면서 의미를 발생시키는 경험으로 주체 중심적 성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메를로퐁티는 세간의 회화를 통해 몸이 느끼는 원초적 지각을 강조하였다. 그는 세간이 이미지나 본질이 아닌 생생한 현존¹⁹⁾을 그리고자 했던 것은 주체에게 드러난 사건화 된 현상을 그리고자 한 것이라 말한다. 몸이 느끼는 원초적 지각이란 부르넬레스키(F. Brunelleschi,

8) J. F. Lyotard, 지식인의 종언, 이현복 역, 문예, 1993, p.159

9) Ibid., p.157

10) “바넷 뉴먼의 ‘Now’는 의식에 알려져 있거나 구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의식을 분해시켜 즉위 해제시키는 것으로 단지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Ibid., p.157

11) 버크나 칸트는 자연의 압도적 크기나 힘을 말한다. 아도르노 또한 자연미로서 버크나 칸트에 속한다. 진중권, op. cit., p.242

12) I. D. S. Moralles, 차이를, 이종진 역, 시공문화사, 2004, p.162

13) “2001 A Space Odyssey는 파시스트 예술의 형태적 구조와 주제를 놀라울 정도로 구현하고 있다.” 수전 손텍, 우울한 열정, 흥한별역, 서울, 2005, pp.45-46

14) 리오타르는 숭고의 정치는 공포의 정치라 칭하고 숭고미에서 체외시킨다. 그러나 정치에는 반드시 숭고의 미학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J. F. Lyotard, op. cit., pp.198-200

15) 조광제, 주름진 작은 몸들로 된 몸, 철학과 현실사, 2003, p.59

16) M. Merleau Ponty, 지각의 현상학, 류의근 역, 문학과 지성사, pp.612-622

17) 박이문, 존재와 표현, 생각의 나무, 2010, pp.155-158

18) 조광제, 몸의 세계, 세계의 몸, 이학사, 2004, pp.433-434

19) M. Merleau Ponty, 김정아 역, 눈과 마음, 마음산책, 2008, p.17

1377~1446)의 소설점으로서의 깊이가 아닌 카라바조(M. Caravaggio, 1573~1610)의 <의심하는 토마>에서 보이는 깊이처럼 몸이 느끼는 심리적 깊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성이전의 지각 경험을 의미한다. 또한 그의 정박 개념은 몸이 처한 공간에 따라 정박점을 바꾸는 것으로 이는 공간이 기하학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우리의 지향적 태도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점을 발견하는 중요한 개념으로서 이 지향적 태도에 의해 사건 또한 달라진다고 보았다. 미셸 푸코는 메를로퐁티의 견해를 비판하였다. 그는 사건이 어떤 실체나 성질, 혹은 우연한 존재나 과정도 아니며 물체의 질서에 속하지도 않고 비물질적 존재 또한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존재 의식과는 별개이며 물질성에 존재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사건은 어떤 물질적 분산의 효과로 생산된다고²⁰⁾ 함으로서 사건을 매 순간적 현상으로 보지만 주체와 구분된 하나의 효과로 보았다는 점에서 비교될 수 있다.

<그림 6, 7> 위 : Masaccio, 성 삼위일체, 아래 : Le Caravage, 의심하는 토마, 1602

2.3. 자크 데리다의 수직성의 사건

데리다는 사건을 어떤 가능성²¹⁾으로 말하였다. 이는 <차연, 差延, defferance>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될 수 있는데 <차연>이란 공간적 의미의 <차이>와 시간적 의미의 <연기>를 동시에 지닌 의미 언어²²⁾이다. 바둑돌 하나가 운동량을 가진 힘의 구조로서 바둑알과 바둑알 사이의 관계에 의해 작용되어 기능을 발휘하므로 중심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공간과 시간이 무한대로 열린 <빈칸> 즉 생성의 에너지로서 혼성적으로 존재하는 불확정성의 사유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힘의 흐름을 드러낸다. <차연>에서 사건의 발생은 주체와 더불어 발생하지만 바둑돌의 예처럼 주체의 능력범위 밖의 타자에 의해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사건의 주체는 오직 사건 자체이다. 데리다는 이러한 타자의 사건적 개입이 예상

밖에 급작스럽게 출현한다는 의미로 수직성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데리다는 사건을 예측 불가능한 수직성의 가능성이라 말하였다. 하이데거가 탈 은폐적 사건을 통해 주체의 현전에 집착하였다면 데리다는 수직성의 사건 자체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데리다의 예측 불가능한 수직성의 사건 개념은 그의 미학적 태도와도 일관된다. 그에게 있어 기원은 부정확하고 애매한 흔적의 결과일 뿐이므로 예술의 진리는 오직 무한히 열린 가능성인 것이다. 따라서 고호의 구두가 누구의 것²³⁾인지 중요하지도 않으며 원본 또한 중요하지 않다. 시선의 권리²⁴⁾에서 그가 예술가의 생각보다 관람자에 의한 해석을 강조하고 있는 점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셰리 르빈(Sherrie Levine, 1947~)의 <워커 에번스를 따라서>는 워커 에번스(Walker Evans, 1903~1975)의 사진을 재촬영한 작품으로 전통적인 의미로 볼 때 명백한 표절이나 데리다의 입장에서는 표절이 아닌 작가 르빈이 해석하는 또 다른 가능성의 해석을 지닌 작품인 것이다. 그는 예술가와 그것을 바라보는 자유로운 시선이 창조해 내는 다양한 사건의 발생을 예술의 진리라고 보았다. 따라서 예술작품의 진리는 결코 한 번에 현전하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 변주, 확장되는 것이라고 함으로서 하이데거를 비판하였다. 이러한 그의 사건개념은 형이상학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어 건축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림 8> 셰리 르빈, After Walker Evans again, 1981

2.4. 질 들뢰즈의 생성하는 사건

사건에 관해 들뢰즈는 매우 구체적으로 사유하였다. 그는 사건에 대해 “효과는 비물체적인 것이므로 물리적 성질이 아닌 논리적, 변증법적 속성들이다. 따라서 효과란 사물이나 사물의 상태가 아닌 사건이다. 그리고 사건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속하거나 내속하는 것으로 존재방식이며 그것이 언어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의미가 되는 것이다.”²⁵⁾라고 말한다. 즉 물체들의 존재, 운동 자체는 의미를 갖지 않지만 이를 인식하는 주체는 중요한 의미를 생성하므로 사건은 단독으로는 무의미하나 조직된 장의 맥락에서는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건 자체는 순수사건이나 연표안의 사건은 특정한 시공

20) Michel Foucault, 담론의 질서, 이정우 역, 새길, 2011, p.42

21) 1997년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에서 “사건에 대해 말한다는 어떤 불가능한 가능성”이란 주제로 강연을 한 바 있다.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은 가능한가?”라는 물음을 통해 “그것은 어떤 가능성을 열어 준다”라고 함으로서 가능성의 사건을 이야기하였다.

22) 김형효, 데리다의 해체철학, 민음사, 1993, pp.219~220

23) 데리다는 하이데거의 고호의 구두 묘사를 탈은폐에 관한 주관적 투사라고 비판하였고 한편 사피로가 고호의 구두를 도시인이 된 고호 자신의 것이라고 비판한 점에 대해서는 하이데거의 관점을 벗어난 오패라고 말하였다. 진중권, op. cit., pp.121~131

24) J. Derrida-M. F. Plissart, 시선의 권리, 신방호 역, 아트북스, 2004

25) Gilles Deleuze, op. cit., p.79

간에 구현되어 문화의 차원²⁶⁾으로 구현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발적으로 자리를 옮기며 구조 전체를 변화시킨다. 그가 매끄러운 공간과 흠 패인 공간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연속적 변이는 이러한 장 안에서의 과거와 미래의 연속된 현재가 아닌 불연속적인 사건(Occurrence)들 사이에서 잠정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불시적 현재²⁷⁾이다. 이것이 보통의 시간과 구별되는 시점 즉 과거와 미래가 구분되는 시간이 특이점이며 이를 구현하는 것이 사건이다. 따라서 모든 사건은 계열 안에서 특이성으로 의미가 솟아오르며 이러한 특이점은 끊임없이 생성된다. 다시 말해 흠 패인 공간에 갇히지 않고 매끄럽게 탈주하는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계열화에 의해 의미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열화된 장 안에서 주체는 개체로서 경험이 의미로서 조직될 때 성립되므로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 드러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하이데거에게 사건이 주체에 의한 의미 구성이라고 한다면 들뢰즈에게 사건은 세계 내로의 생성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또 메를로퐁티에게 의미가 사물에 대한 지각에 의해 발생한다면 들뢰즈에게 의미는 사물에 대한 지각 이전의 보다 근원적인 차원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발견 할 수 있다.

들뢰즈의 사건 개념은 미학적으로 본질과 현상을 동시에 전복시킨 시뮬라크르의 범주를 추출해 내었다²⁸⁾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즉 세상의 모든 사건들은 원환운동을 통해 끊임없이 차이와 반복을 작동시키므로 원본이나 기원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방이 아닌 한 없이 증식되는 동일한 이미지의 반복이라는 점이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수천 년을 지배한 미메시스 이론을 반복 이론으로 바꾸고 시뮬라크르 시대를 연 것이다. 앤디워홀(Andy Warhol, 1928~1987)의 캠벨수프(1962), 두 개의 마릴린(1962), 위쇼스키 형제 감독의 영화 매트릭스(1999)의 중심에는 이러한 시뮬라크르에 대한 질문이 관통한다. 본관이 무수히 존재하는 반복되는 이미지, 현실과 모사 사이의 경계가 사라져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는 이러한 작업들은 들뢰즈의 사건 사유가 시뮬라크르 미학으로 전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문헌조사를 통해 사건 사유의 특징을 비교

<그림 9> 매트릭스(1999, 감독 위쇼스키 형제)

26) Gilles Deleuze, 감각의 논리, 하태환 역, 민음사, 2008

27) I. D. S. Moralles, 차이들:현대건축의 지형들, 이종건 역, 시공문화사, 2004, p.141

28) Gilles Deleuze, op. cit., 1999, pp.44-45

해 보면 <표 1>와 같이 정리된다. 특성들을 살펴보면 사건의 사유가 주체 중심의 진리로부터 잠재된 사건의 끊임없는 차이와 반복으로 순환되는 차이를 알 수 있다.

<표 1> 사건의 특성

	사건	하이데거	메를로퐁티	데리다	들뢰즈
사건 내용	본질	주체의 지각적 체험	직관과 주관의 결합하여 발생된 의미	차연	시뮬라크르의 원환운동
	주체	존재자(주체)	존재자(주체)	타자 (주체의 해체)	불확정성의 세계
	성격	거주 / 기원	몸의 지향성	수직성, 우연성	잠재성
사건 형식	형식	현상적 장소	몸의 체험적 장소 (정박점)	빈칸	매끄러운 공간과 흠 패인 공간

3. 사건의 사유와 건축의 연관성

3.1. 존재론적 사건과 건축의 연관성

하이데거는 사건과 마찬가지로 장소에 대해 어떤 사건이나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²⁹⁾ 실존적으로 체험의 방식으로 바라본다. 즉 주체의 지각적 체험이 공간성의 본질이며 사건이 발생될 때 실존적 장소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축은 상당부분 받아들였으며 알바르 알토(Alvar Aalto, 1898~1976), 루이스 칸, 피터 Zumthor 등의 상이한 작품들의 공통 기반을 마련했다.³⁰⁾

본 논의에서는 루이스 칸과 피터 Zumthor의 사고에 주목하였는데 이들은 자신이 쓴 글들을 통해 하이데거의 입장을 받아들였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데거가 예술작품을 탈 은폐함으로서 존재의 진리 즉 사건이 발생한다고 보았던 것처럼 루이스 칸은 건축 작품에서 형식을 넘어 삶과 경험, 관습의 문제를 중심으로 의미를 생산하는 것이 건축의 본질이며 사건의 발생이라고 보았다. 특히 그는 건축이 침묵하는 것으로 존재하기를 바라고³¹⁾ 현상학적 빛을 통해 건축의 존재를 탈 은폐시킨다고 함으로서 건축의 사건화에 빛의 경험을 내세웠다. 존 로벨³²⁾은 그가 설계한 솔크 연구소(1965)에 대해 실험을 위한 기능보다는 엄숙하고 사색적인 공간으로서 건축 작품의 하이데거적 존재 실현을 목적하고 있다고 함으로서 그의 작품과 하이데거의 관계성을 증명하고 있다. 피터 Zumthor 또한 건축을 개인의 경험과 장소에 대한 각인에 의해 비로소 작품으로서 실존하게 된다고 하는 하이데거의 사건 사유를 따르고 있음을 여러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담 샬³³⁾은 피터 Zumthor의 발스 스퀘에 대해 하이

29) M. Heidegger, 강연과 논문, 이학사, 2008

30) I. D. S. Moralles, op. cit., p.99

31) John Lobell, 침묵과 빛, 김경준 역, 시공문화사, 2009, p.62

32) John Lobell, op. cit.

33) Adam Sharr, 건축과 철학 : 하이데거, 장정재·송규만 공역, 시공사, 2010, p.118

데거적 거주를 공감각적 경험으로서 자신의 건축에 심는 의도를 실현한 작품으로 평가하였다. 그는 거주의 개념을 공간에 심기 위해 현상학적 경험과 삶, 대지의 맥락을 작품의 필연적 과제로 삼고 있음을 피력하였다.³⁴⁾ 이처럼 칸과 줌터는 건축을 존재 중심 사고로서 바라보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의 기억속의 기반과 조우하는 주관적 경험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극적이고 현상적인 체험의 장소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림 7>과 같이 하이데거의 사건 사유와 연관성이 증명될 수 있다.

<그림 10> 존재사건과 건축의 연관성

3.2. 몸의 지각으로서 사건과 건축의 연관성

메를로퐁티가 강조하고 있는 몸의 지각 경험과 지향적 몸의 의미화 된 사건을 깊이 있게 받아들인 건축가는 스티븐 홀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 <정박>³⁵⁾을 통해 메를로퐁티의 공간적 깊이와 천착되어있음을 밝히고 있다³⁶⁾. 그는 건축에 대해 맥락을 모아 장소와 결합하면서 물리적 요구들을 뛰어넘고 이것이 몸으로서 직접 체험될 때 비로소 공간이 사건화 된다고 함으로서 메를로퐁티의 사건의 본질 즉 몸의 체험에 합류한다. 스티븐 홀은 몸의 지각 측면에서 공간의 깊이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그에게 대지는 몸이 빛, 냄새, 색채, 상황, 역사 등과 더불어 형성되는 정박점이며 이는 공간의 깊이와 변화되는 몸의 위치를 통해 다양한 공간적 체험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한 그는 자신의 저서 <엮임>³⁷⁾을 <정박>과의 연장선으로 묶고 몸의 체험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촉각, 청각, 후각, 미각 등의 공감각들이 엮임으로서 미지의 지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티븐 홀은 메를로퐁티의 공간적 깊이를 해석함에 있어 주체의 몸이 과거, 현재, 미래의 상황과 접목되고 서로 엮임으로서

<그림 11> 지각의 사건과 건축의 연관성

의미를 발생하게 될 때 사건화 된 정박점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3.3. 텍스트의 충돌 사건과 건축의 연관성

건축에서 데리다의 수직성의 사건 개념을 받아들인 것은 해체주의 건축가들이었다. 이들은 데리다의 끊임없이 반복, 변주, 확장되는 차연의 구조를 받아들이고 한번으로 진리가 현전되어버리는 하이데거의 사건 개념을 과감히 버린다. 특히 그들은 하이데거의 맥락적 장소 개념으로부터 벗어나 사건의 흔적이 기억되는 텍스트로서 접근하였다. 피터 아이젠만(Peter D. Eisenman, 1932~)의 흐릿한 지역(Blurred Zone), 베르나르 추미의 이벤트 시티(event Cities)가 그 사례라 할 수 있다. 본 논의에서는 베르나르 추미로부터 그 연관성을 찾고자 하였는데 이는 그가 데리다의 사건 개념을 자신의 건축 이론으로 대치시키는데 매우 적극적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는 사건을 기억과 부재의 흔적이 형식화된 텍스트가 서로 중첩되면서 우연적으로 만들어진 장소성으로 인식하였다.³⁸⁾ 즉 다른 예술 영역이나 인문학 등에서 파생된 개념을 연관시켜 텍스트 간에 내재한 갈등을 유도하는 작업을 통해 공간의 사건화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 지역, 문학, 음악, 움직임 등의 텍스트들을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또한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들을 중첩시키는 것은 건축의 설계자가 누구인지를 고의로 흐트러 놓는 결과³⁹⁾로서 주체는 사라지고 오직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만이 남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것이 데리다가 말하는 수직성의 사건이라고 믿었다. 데리다가 기원을 부정확한 흔적의 결과로 바라보듯 그의 작품 전반에 나타나는 이벤트 개념은 맥락이 거부된 독립된 텍스트로서 서로간의 충돌을 통해 사건을 만든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그림 12> 같이 데리다의 사건 사유와 연관됨이 증명된다.

<그림 12> 텍스트적 사건과 건축의 연관성

3.4. 불확정성의 사건과 건축의 연관성

들뢰즈의 사건 개념은 램콜하스와 관련된다. 이는 그의 작품들이 들뢰즈의 사고를 받아들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이론들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⁴⁰⁾ 그는 건축의 불확정성 개념을 위해 들뢰즈의 매끄러운 공간과 홈패인 공간의 탈주로부터 실마리를 찾는다. 이 두 공간은

34) Peter Zumthor, Peter Zumthor Works : Building and Project 1979~1997, Lars Willer, Baden, 1998

35) Steven Holl, Anchoring, New York :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89, p.2

36) 이미경, 현대공간디자인에서의 현상학적 특징과 가능성,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권 2호, 2011, p.10

37) Steven Holl, Intertwining,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6

38) 정인하, 현대건축과 비표상, 아카넷, 2006, p.72

39) I. D. S. Morales, op. cit., p.142

40) 김원갑, 램콜하스의 건축, 시공사, 2008, p.115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열림과 닫힘을 반복하며 연속 변이를 일으키는데 이때 사건이 발생되며 계열화에 의한 의미가 생성하는 것으로 렘콜하스는 이를 쿤스트할을 통해 실현하였다. 그는 쿤스트할에 대해 여러 사건이 마주치고 그것들이 우연으로 다양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설계되었음을 직접 밝힘⁴¹⁾으로서 들뢰즈의 시물라크르의 원환 운동으로서의 사건 본질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탈주하는 공간으로 건축화하였다. 따라서 공간의 주체는 불확정적이며 경계가 사라진 잠재성의 공간이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들이 들뢰즈의 사건 사유와 연관된다.

<그림 13> 불확정성 사건과 건축의 연관성

지금까지 사건을 담론으로 내세운 철학자와 자신의 건축 사고에 그것을 받아들여 작품화한 건축가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사유의 관점에 따라 매우 다르게 영향을 받아 왔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그들의 건축 작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사건의 사유가 건축에 영향을 미친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공간화 된 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그 특징을 탐구하고자 한다.

4. 공간화 된 사건의 사례 분석

이 장에서는 건축에서 사건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공간화 된 특징이 다름을 구체적으로 탐침하고자 한다. 사례 분석은 3장의 문헌조사를 통해 연관성이 확인되었던 작가 중심으로 루이스 칸, 피터 Zumthor, 스티븐 홀, 베르나르 추미, 렘 콜하스의 작품들에서 사건 사유의 특징을 드러낸 작품이나 본인, 혹은 건축 비평가들의 언급을 참고로 선별하였다. 선별된 작품은 칸의 예일대 영국예술센터(1974), Zumthor의 발스 스파(1996), 홀의 벨슨 에킨스 뮤지엄(2007), 추미의 라빌레트 공원(1998), 콜하스의 쿤스트 할(1992)이다. 작품의 분석 방법은 <그림 14>의 사건화 방법의 분석 틀을 사용한다. 공간의 본질은 설계과정 중 가장 건축가의 사고와 밀접한 단계인 공간계획특성을 통해 분석 가능하다. 또한 사건의 주체는 공간의 주체를 통해 분석 가능하며 사건의 성격은 공간에서 사건을 만드는 성질 측면에서 분석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사건의 형식을 분석함은 사건이 형식화된 공간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논의될 수 있다.

<그림 14> 건축의 사건화 방법의 특징 분석을 위한 틀

4.1. 예일대학교 영국예술센터(1965)_루이스 칸

<그림 15> 예일대학교 영국미술센터, 미국 코네티컷, 1965

예일대학 내에 설립된 영국미술센터(Yale Center for British Art)는 칸이 전략으로 내세운 <단위 공간_룸(Room)>개념에 의해 설계된 작품이다. 사유의 시초로서 룸 개념에 대해 칸은 “룸은 건축의 시작이다. 그것은 마음의 장소이다.”⁴²⁾라고 함으로써 건축공간 구성방식의 기본으로 삼았다. <룸(Room)>개념은 기능을 포함한 독립된 구조 안에 빛을 일체화시키는 단위공간으로서 영국 미술센터로부터 요구받은 예술작품의 친근한 스케일과 도서관, 회화, 드로잉 수장고, 특별전시 등의 기능 뿐 아니라 학자, 전문가, 학생들이 연구, 토의가 가능한 다양한 종류의 실을 구성해야하는 과제⁴³⁾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룸개념에 의해 구조는 빛과 그림자의 증여자이며 이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룸은 빛을 결정하고 있는 것⁴⁴⁾으로 공간의 단위, 구조, 빛은 분리된 것이 아닌 하나이다. 또한 칸은 건축의 근원을 위해 요구사항을 뛰어 넘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직관적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였는데 이에 대해 루드 페트리시아⁴⁵⁾는 “영국미술센터는 중정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박물관의 전통하에 있으며 보자르 박물관이나 신고전주의 박물관 혹은 팔라조를 연상시킨다.”고 함으로써 근원을 찾고자 하는 칸의 의도를 증명한다. 칸은 내부에서 다양하고 극적인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 건축의 기하학적 조형성을 중요하게 다루었는데 존 로벨⁴⁶⁾은 이러한 칸의 구조에 대해 빛을 존재시키기 위한 증여자로서 사용된다고 말하였다.

41) 건축비평가 안나 클링만(Anna Klingmann)과 나눈 대화, Heike Sinning, More is more, 주범·정태용 공역, MGH Architecture Books, 2004, p.61

42) Alessandra Latour, Louis I. Kahn : Writings, Lectures, Interviews, pp.263-264

43) Loud Patricia, The Art Museums of Luis I. Kahn, Durham and London, 1989, p.265

44) Alexandra Tyng, 루이스칸의 건축철학, 이강주 역, 태림문화사, 1993, p.123

45) Loud Patricia, op. cit., p.13

46) John Lobell, op. cit.

이렇듯 그의 모듈화 된 엄격한 공간구성 형식은 중앙 홀을 중심으로 단위공간들이 결합하는 질서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것은 빛을 통해 비로소 미술센터로서 존재하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영국미술센터의 공간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예일 영국미술센터의 공간특징 분석

공간 계획 특성	사건 공간 주제
<p>구조+기능+빛이 일체화 된 룸(room)은 건축 존재의 실현이다</p>	<p>질서화 된 건축존재와 사용자의 주관적 경험</p>
사건을 만드는 성질	조형적 특성
<p>중정 중심의 박물관은 고전적 전통 하에 근원을 심는다.</p>	<p>빛과 그림자의 형태를 만드는 구조의 조형성</p>

4.2. 발스 스파(1996)_피터 Zumthor

스위스 발스에 세워진 발스 스파(Therme Vals)는 대지의 비탈진 언덕을 따라 건축물이 묻혀있어 외형 자체가 자연에 순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료에 있어서도 지역에서 채석된 편마암을 적층하여 만듦으로서 주변과 어울리도록 하였는데 이는 피터 Zumthor가 추구하는 장소적 근원 즉 알프스 대지에 건축을 탈 온폐 시키는 그의 건축 사고를 그대로 담고 있다. 피터 Zumthor는 하이테거의 사유를 발스 스파에 대응시키고 있음을 직접 밝히기도 하였다.⁴⁷⁾ 그는 발스 스파의 존재실현하기 위해 목욕의 과정을 상상속의 경험⁴⁸⁾으로 극화시키고 특별한 현상적 경험을 공간 안에 심고자 하였다. 따라서 목욕을 종교 의식화하고 안개와 물, 산과 돌, 수 만년 된 주변의 것들을 내부공간에 심고자하였음을 밝히고 이것에 대해 시적 거주의 전략을 실천한다고 하였다. 발스 스파의 외형은

<사진 16> 발스 스파, 스위스 발스, 1996

직사각형의 단순한 박스 형태로서 이는 다시 15개의 블록으로 나뉘는데 이 블록 사이로 빛을 유입시킨다. 그리고 블록 사이로 유입된 빛은 공간의 흐름을 만든다. 각각의 블록 내부는 빛 외에도 마천석의 적층된 재료와 안개, 허브 등으로부터 느끼는 공감각적 체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지역의 축각적 재료인 편마암 6만개는

내부공간에서도 거칠게 적층됨으로서 태고의 동굴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만들어 내며 사용자가 감성적으로 스파에 깊게 빠져들도록 유도한다. 피터 Zumthor가 <사물을 바라보는 방법>에서 문손잡이에 대한 묘사를 했던 것⁴⁹⁾처럼 그가 발스 스파에서 사용한 지역의 돌, 자연, 물, 소리, 냄새와 같은 요소들은 그의 건축을 사건화 하기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료였다. 따라서 발스 스파는 건축의 조형성 보다는 주체의 삶과 대지의 맥락이 만나 공감각적 요소를 통해 체험 가능하게 함으로서 거주를 실현하고 이로서 건축이 실존하게 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발스 스파의 공간적 특징을 사건적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발스 스파의 공간특징 분석

공간 계획 특성	사건 공간 주제
<p>건축의 실존 시적 거주 (목욕의 종교 의식화)</p>	<p>사용자의 삶과 관계된 감성, 공감각적 체험 강조</p>
사건을 만드는 성질	조형적 특성
<p>물, 안개, 냄새, 소리, 지역의 재료를 통한 근원과 맥락적 본질</p>	<p>형태적 특징 보다는 공감각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흐름 강조</p>

4.3. 넬슨 에킨스 뮤지엄(2007)_스티븐 홀

스티븐 홀의 넬슨에킨스뮤지엄(The Nelson-Atkins Museum)은 1933년 바로크 양식으로 세워진 기존 박물관 옆에 증축된 미술관이다. 기존 건축물의 육중한 매스와 기둥들은 신고전주의 양식으로서 웅장한 느낌을 가진다면 스티븐 홀은 이와 대비된 반투명하고 가벼운 소재의 유리를 통해 서로의 성격을 극적으로 조화시키고자 하였다. 대지는 높이를 달리하며 길게 뻗어있는데 그는 대지의 맥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정박>과 <엄밀>의 공간적 깊이를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각기 모양이 다른 5개의 유리박스를 길게 펼쳐진 대지를 따라 지하에 정박시켰는데 이 유리박스를 스티븐 홀은 유리렌즈라고 불렀다. 건축의 구성은 몸의 움직임을 따라 5개의 유리렌즈를 이용해 분화시키고 이를 서로 엄히도록 하여 대지위에 정박시키고 있다. 이렇게 정박된 박물관의 형태는 중첩과 분화, 축과 크기의 변화 등을 통해 공간적 깊이를 부여받고 영역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이렇게 분절된 5개의 유리 렌즈들은 지하로부터 대지 상부까지 높게 솟아 올라와 있는데 상부는 대지에 의해 결정된 하부의 형태에서 또다시 분절과 굴절, 그리고 중첩되면서 빛의 음영을 만든다. 이는 다양한 현상학적 분위기의 체험 뿐 아니라 공간의

47) Peter Zumthor, op. cit.

48) Adam Sharr, op. cit., p.116

49) Peter Zumthor, Thinking Architecture, Chronicle Books LLC., 2007

<그림 17> 넬슨 에킨스 뮤지움, 미국 캔자스시티, 2007

깊이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공간적 특징은 스티븐 홀이 추구하는 공간적 깊이의 완성을 위해 조형성 보다는 박물관 내의 몸의 유적을 따르는 시퀀스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 이는 몸이 흐름을 따라 스스로 움직임으로서 공간 내부로 깊숙이 침투되어 공간과 하나가 되는 효과를 지닌다. 공간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표 4>와 같이 분석되었다.

<표 4> 넬슨에킨스뮤지움의 공간특징 분석

공간 계획 특성	사건 공간 주제
<p>바로크 건축과 투명한 유리 이접을 통한 의미와 장소의 얽힘</p>	<p>몸의 움직임을 통한 주관적 경험 강조</p>
사건을 만드는 성질	조형적 특성
<p>주체의 움직임으로 완성되는 공간의 성질, 몸의 지향성</p>	<p>형태 보다는 공간의 분절과 중첩을 통한 공간의 깊이감 강조</p>

4.4. 라 빌레트 공원(1998)_베르나르 추미

파리 북동쪽 19구 외곽지역에 위치한 라 빌레트공원(Parc de la Villette)은 원래 도축장으로 사용되었던 곳이 공원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는 10m 크기의 정육면체에서 파생된 23개의 각기 다른 모양의 폴리들이 120m의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배치되었는데 이 폴리를 통해 추미는 공원 사용자들의 활동, 프로그램 및 이벤트 공간이 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를 반영하였다. 즉 평상시에는 레스토랑, 상점, 전망대, 입구 등으로 사용되나 페스티벌 혹은 콘서트 무대 등으로 변용하도록 함으로서 공원 전체가 각기 다른 이벤트로 가득 차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추미는 이를 멩트낭 건축(Maintenant l'architecture)⁵⁰⁾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폴리들이 계속해서 차연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생성시키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으로서 <지금 사건이 일어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는 관습적인 건축의 재현에서 배제되어 왔던 것

<사진 18> 라빌레트 공원, 1998

들의 관계를 충돌시킴으로서 드러나는 우연성을 통해 사건이 발생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풀리는 건축가의 의도는 최소화되고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추미는 수직성의 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라 하였다. 이를 위해 추미는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들을 중첩시키고 기존의 조형성을 해체하는데 라 빌레트 공원에서 사용한 텍스트로는 피네간의 경야(Finnegan's Wake)의 점과 그리드⁵¹⁾, 아이젠슈타인(Sergei Eisenstein, 1898~1948)의 몽타주를 이용한 맨하탄 트랜스크립트(Manhattan Transcripts)⁵²⁾ 등이다. 여기서 점은 대지에서 자율적 변형이 가능한 폴리(Folie)로서 대치되었고 곡선은 폴리들을 연결하는 길로, 그리드의 면은 광장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건축의 윤곽과 사람들의 움직임이 되었다. 여기서 기존의 조형성은 사라지고 텍스트 간의 충돌의 흔적이 건축의 새로운 조형이 된 것이다. 라 빌레트 공원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라 빌레트공원의 공간특징 분석

공간 계획 특성	사건 공간 주제
<p>멩트낭 건축 개념의 이벤트가 발생되는 폴리</p>	<p>텍스트 조합에 의한 주체의 해체</p>
사건을 만드는 성질	조형적 특성
<p>사건이 만들어지는 가능성, 수직성의 건축</p>	<p>몽타주 기법을 통한 충돌의 흔적</p>

4.5. 쿤스트 할(1992)_렘 콜하스

로테르담에 위치한 쿤스트할(Kunsthal)의 경사진 대지는 남쪽으로 고속도로와 면해있고 북쪽으로 공원이 접해 있다. 렘콜하스는 이러한 차이나는 대지를 연결하는 계획으로서 건축의 중성화와 프로그램의 불확실성을 내세웠다. 그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특징인 기울어진 바닥판은 쿤스트할에서도 등장하는데 이는 그가 의도하고자

<그림 19> 쿤스트할, 암스텔담, 1992

- 50) K. Michael Hays, 봉일범 역, Architecture Teaory since 1968, 시공문화사, 2003, p.542
- 51) 피네간의 경야에서 사용한 점과 그리드는 조이스의 정원(Joyce's Garden)에서 사용하였던 것으로 이는 존 케이지의 폰타나믹스(Fontana Mix, 1958) 악보로부터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김홍기/김미경, 피네간의 경야를 통해 본 존 케이지 음악과 베르나르 추미의 상호텍스트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09.10, pp.67-68
- 52) Bernard Tschumi, Architecture and Disjunction, MIT Press, 1998, p.147

하는 공간의 불확정성의 개념이 실현된 초기 사례로 알려져 있다. 공원과 미술관은 하나의 표면으로 연결되어 있고 외부와 내부는 기울어진 바닥에 의해 관통될 뿐 아니라 이 바닥판의 떠들은 서로 교차하면서 시선과 응시⁵³⁾가 역전되는 불확정한 주체로서 끊임없이 탈주하는 공간이다. 대지의 맥락과 분리된 박스형의 건축물은 남북과 동서로 가로지르는 판에 의해 4개의 공간으로 분리되고 이것이 바닥판에 의해 미로와 같은 복잡하고 입체적인 동선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생겨난 3개의 전시실과 공연장, 그리고 레스토랑은 각기 공간적 경계나 특질을 내세우지 않고 중성적 성격을 지닌 불확정성의 장소가 된다. 또한 기울어진 바닥판을 통해 사람들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새롭게 조직⁵⁴⁾하게 되는데 이 흐릿한 내부와 외부의 경계는 들뢰즈의 공간성에서 나타나는 매끄러운 공간과 흠 패인 공간이 탈주하는 형식을 담는다. 그는 조형적 특성 보다는 프로그램과 사용자에 의해 공간이 결정되는 잠재성의 공간을 추구하였다. 쿤스트할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표 6>과 같이 분석되었다.

<표 6> 쿤스트할의 공간특징 분석

공간 계획 특성		사건 공간 주체
불 확 실 성 의 공간 개념		주체의 해체 시선과 응시가 교차되는 불 확 실 성 의 주체
사건을 만드는 성질		조형적 특성
기울어진 바닥판을 통한 흐릿한 경계, 중성적 건축		프 로 그 램 과 사용자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탈 주 공간/조형성의 무의미

5. 결론

건축 작품에 나타난 사건사유의 특성을 공간계획특성, 사건공간주체, 사건 성질, 조형특성의 4가지 측면을 구체적으로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표 7> 사건의 본질과 공간계획특성을 통한 분석

	루이스 칸	피터 Zumthor	스티븐 홀	베르나르 추미	렘콜하스
사건 본질	진리발생	진리발생	직관과 주관의 결합 의미	자연	시물라크르의 원환운동
공간 본질	건축의 존재실현	건축의 존재실현	주체의 의미와 장소의 얽힘	차이공간	끝없이 반복하는 탈주공간
공간 계획 특성	구조와 빛, 기능을 하나로 묶는 존재적 건축	시적거주의 체험을 통한 건축의 실존 추구	의미와 장소, 감각의 얽힘이 생산하는 체험적 건축	끊임없이 이벤트가 발생 되는 건축 추구	잠재성을 가진 불확실성의 공간 추구

53) 자크 라캉에 따르면 인간의 시각은 주체의 시선 뿐 아니라 타인에 게 보여 지는 응시가 동시에 중첩되어 형성되는데 시선은 주체가 이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고 응시는 이 세계가 주체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인하, op. cit., pp.138-139

54) 정인하, op. cit., pp.140-141

첫째, 사건의 본질을 건축에서 자신의 건축 사고로 받아들임으로서 작품의 공간계획전략으로 반영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비교되었다.

둘째, 공간에서 사건을 만드는 주체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비교되었다.

<표 8> 사건의 주체와 사건 공간 주체를 통한 분석

	루이스 칸	피터 Zumthor	스티븐 홀	베르나르 추미	렘콜하스
사건 주체	존재자 (주체)	존재자 (주체)	존재자 (주체)	타자 (주체의 해체)	불확정성의 세계
공간 주체	주관적 경험	주관적 경험	주체 중심	주체의 해체	불확정성의 주체
사건 공간 주체	주관적 경험과 현상적 빛	주관적 경험과 공감각적 체험 요소	몸의 움직임을 통한 주관적 경험	텍스트 조합에 의한 주체의 해체	시선과 응시과 바뀌는 불확실성의 주체

셋째, 공간에서 사건을 만드는 성질로서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비교되었다.

<표 9> 사건의 성격과 공간에서 사건을 만드는 성질 분석

	루이스 칸	피터 Zumthor	스티븐 홀	베르나르 추미	렘콜하스
사건 성격	거주/기원	거주/기원	몸의 지향성	수직성/우연성	잠재성
공간 성질	삶과 경험, 맥락적 거주의 본질	삶과 경험, 맥락적 거주의 본질	주체의 움직임	가능성/일어나는	잠재성/잠재성의 공간
공간 사건 성질	고전적 전통하의 근원과 건축 존재의 실현	공감각과 지역의 재료를 통한 근원과 거주 실현	지향성의 움직임을 통한 다양한 몸의 지각 체험	사건의 가능성을 지닌 수직성의 건축	흐릿한 경계와 중성적 건축

넷째, 사건 공간의 조형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비교되었다.

<표 10> 사건 형식과 공간의 조형적 특징 분석

	루이스 칸	피터 Zumthor	스티븐 홀	베르나르 추미	렘콜하스
사건 형식	현상적	현상적	몸의 체험적 장소/정박점	빈칸(가능성)	매끄러운 공간과 흠패인 공간
공간 형태	현상적 장소 체험	현상적 장소 체험	몸의 체험 (정박)	텍스트간의 중첩	탈경계 흐릿한 공간
조형 특성	빛과 그림자를 만드는 구조적 조형성 강조	형태보다는 공감각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흐름 강조	형태보다는 공간의 분절과 중첩을 통한 공간의 깊이감 강조	텍스트의 중첩을 통한 충돌의 흔적으로서의 조형성	프로그램과 사용자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공간성 강조

이상의 분석표를 통해 건축이 사건을 존재론적 입장에서 받아들인 경우 건축 또한 존재로서 인식하고 사건을 건축의 실존으로서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미와 콜하스가 받아들인 사건은 건축 자체가 사건을 만들어 내고자하는 공통 기반을 가지나 추미의 사건이 건축 자체에 집중되어 있다면 콜하스의 사건은 끊임없이 차이와 반복이 진행되는 성질에 집중되었다는 점이 비교된다. 건축경험의 주체로서 칸, Zumthor, 홀의 경우 주체 중심 안에 있다면 추미와 콜하스의 주체는 해체되고 불확정적이

다. 사건을 만들어내는 성질에 있어 칸, 줌터, 홀의 경우 대지, 혹은 삶의 근원을 빛, 공감각, 지각 등의 현상학적 요소들과 결합시킨다면 추미는 이러한 관습적 맥락을 거부하고 상관없는 텍스트들을 받아들였다. 콜하스 또한 맥락을 벗어나 건축의 불확정성을 통해 잠재성을 추구하였다. 사건의 공간화 형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칸은 빛의 형태를 만드는 구조의 조형성을 강조하나 이는 건축 조형 원칙을 따르고 있다기보다는 사건적 경험을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조형 중심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줌터, 홀, 콜하스의 작품에서도 조형성 보다는 사용자 중심의 체험을 강조하고 그것이 건축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미의 경우 방법적인 면에서 기존의 조형 개념을 해체하고자 하였으나 이 또한 조형성을 만드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조형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장에서 밝힌 대로 사건이 의미의 사유라는 점으로 비춰 볼 때 건축이 사건을 만든다는 것은 의미를 생성하는 일이다. 그리고 건축의 의미는 장소가 된다. 본 연구는 사건을 의미로서 바라보고 있는 현대 철학에서 건축이 그러한 의미를 심고자 한다면 사건의 사고가 과거로부터 어떻게 건축에 반영되어 왔는지 관계망을 탐구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건의 사고가 존재론적 입장에서 생성의 입장으로 진행되는 동안 건축이 받아들인 사고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는 건축의 상호 텍스트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김원갑, 램콜하스의 건축, 시공사, 2008
2. 김형효, 데리다의 해체철학, 민음사, 1993
3. 박영욱, 필로아키텍처, 향연, 2009
4. 박이문, 존재와 표현, 생각의 나무, 2010
5. 정인하, 현대건축과 비표상, 아카넷, 2006
6. 조광제, 주름진 작은 몸들로 된 몸, 철학과 현실사, 2003
7. 조광제, 몸의 세계, 세계의 몸, 이학사, 2004
8. 진중권, 현대미학강의, 아트북스, 2003
9. 이기상, 하이데거의 존재사건학, 서광사, 2003
10. Adam Sharr, 건축과 철학 : 하이데거, 장정재·송규만 공역, 시공사, 2010
11. Alexandra Tyng, 루이스칸의 건축철학, 이강주 역, 테림문화사, 1993
12. Gilles Deleuze, 감각의 논리, 하태환 역, 민음사, 2008
13. Gilles Deleuze, 의미와 논리, 이정우 역, 한길, 1999
14. Heike Sinning, More is more, 주범·정태용 공역, MGH Architecture Books, 2004
15. I. D. S. Moralles, 차이들, 이종건 역, 시공문화사
16. Jacques Derrida·M. F. Plissart, 시선의 권리, 신방훈 역, 아트북스, 2004
17. J. F. Lyotard, 지식인의 종언, 이현복 역, 문예, 1993
18. John Lobell, 침묵과 빛, 김경준 역, 시공문화사, 2009
19. K. Michael Hays, Architecture Teory since 1968, 봉일범 역, 시공문화사, 2003
20. M. Heidegger, 강연과 논문, 이학사, 2008
21. M. Merleau Ponty, 지각의 현상학, 류의근 역, 문학과 지성사
22. M. Merleau Ponty, 눈과 마음, 김정아 역, 마음산책, 2008
23. Michel Foucault, 담론의 질서, 이정우 역, 새길, 2011
24. B. Tschumi, Architecture and Disjunction, MIT Press, 1998
25. M. Heidegger, Time and Being, trans. Joan Stambaugh, Harper and Row, 1977
26. Peter Zumthor, Building and Project 1979~1997, Lars Willer, Baden, 1998
27. Peter Zumthor, Thinking Architecture, Chronicle Books Llc., 2007
28. Susan Sontag, 우울한 열정, 홍한별 역, 시울, 2005
29. Steven Holl, Anchoring,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89
30. Steven Holl, Intertwining,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6
31. 김흥기·김미경, 피네간의 경야를 통해 본 존 케이시 음악과 베르나르 추미의 상호텍스트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09
32. 문창옥, 현대철학의 하이데거적 문맥에서 본 화이트헤드의 사건 분석, 한국동서철학회논문집 28호
33. 이미경, 현대공간디자인에서의 현상학적 특징과 가능성,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권 2호, 2011

[논문접수 : 2012. 12. 31]

[1차 심사 : 2013. 01. 22]

[게재확정 : 2013. 02. 08]